

<성실, 나를 만든다.>

성장배경

저는 공군 장교로 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당시 대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과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어울려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생활에 대해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성격소개

저의 장점인 책임감과 신뢰, 시간관리, 제정관리, 끈기, 인내, 부지런함, 꾸준함, 책임감을 통해 속한 곳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잃지 않는 웃음과 미소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너무나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탓에 잘 다가가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시점에 들어와서부터 였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성실함이 중요한 결정체로 작용된다는 걸 알았기에 더욱 부지런히 그리고 폭넓고 신중하게 저의 단점을 극복해나갔습니다.

학창시절

이러한 가정 속에서 나와 학창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을 따라가기 위한 경쟁보다는 우선 제가 있는 곳에서의 먼저 이루어야 할 일들과 목적에 대해 깊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자아의 안정감으로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의 자리에서의 책임과 자부심으로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소통과 끊임없는 신뢰를 중시하게 생각했던 저는 대화 속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학업생활과 가정생활, 더불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그 속에서 협력하고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지켜나갈 수 있는 자리 속에서의 뚜렷한 목적과 주변 사람들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인해 제 삶에 더 스스로의 자아를 성취하는 데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런 저에게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는데 있어 효율적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그 속에서 많은 경험과 생각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한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해오던 책임과 신뢰를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틈틈이 적용하여 원하는 삶으로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학 시절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념을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업 뿐 아니라, 기독교 동아리인 DFC(disciple for christian), 학과의 사람들과 교우를

넓히기 위한 축구 동아리에서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업과 동아리 활동으로 인하여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고, 제 자신에게 있어 도전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아리 공동체 속에서 조직을 계획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되어 제가 생각해오던 책임감으로 꾸준하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져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단점 중 하나였던 저의 주장 말하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단체 속에 공존하여, 협력하여 의견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대화를 통해 원하는 바를 듣고 그것에 걸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과 편차에 대해 이해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장점 중의 하나인 웃음을 활용하여 사람들과 교류관계에 있어서 더욱 편하게 만들어 활기찬 이야기의 주제로 사람들과 브레인토밍을 통하여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동아리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적어지고 학업과 스펙에만 집중하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동아리를 찾지 않는 이들이 조금 더 동아리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끝에 '밥모임'을 추진하여 기존의 사람 뿐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과 교제의 시간을 늘려가고자 하였습니다.

독서

독서란,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독서는 어떠한 장르를 접하든 간에 그 속에서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생각의 깊이와 정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소설대로, 희곡은 희곡대로, 수필은 수필대로의 멋이 깃들여 있어 무엇을 읽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대체로 중요하다는 생각이기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접근하기에 각각의 재미와 깊이는 다르다고 봅니다.

어릴적부터 책을 좋아하였기에 몇 시간이든 책을 읽으며 심적인 여유와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기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문학적으로 접하였던 문장들을 실상 속에서 접근하여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었고, 많은 생각을 자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의 신중한 선택을 위한 참을성과 인내는 지금도 살아가는데 좋은 이바지를 해줍니다.

또한 제 생각을 간접적으로 글로 승화시켜 표현 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독서를 읽는 것에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